



1인당 GDP 3만 달러 시대와 환율

윤성훈 선임연구위원, 한성원 연구원

우리나라 1인당 GDP는 올해 사상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. 1인당 GDP가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증가하는 데 12년이 소요된 것인데, 이는 일본을 제외한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들의 평균 기간과 같음. 이들 국가보다 경제성장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12년이 소요된 이유는 남북 대치라는 지정학적 위험과 외환위기 경험, 그리고 미약한 원화 국제화로 그 동안 환율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. 1인당 GDP가 3만 달러에 근접하면서 환율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가 높아지고 있는 등 내수 활성화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업 등 내수 부문에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완화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

■ 국회예산정책처(2017)¹⁾는 우리나라 1인당 GDP가 2017년 29,332달러에서 2018년 31,058달러로 증가하여 사상 처음으로 3만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함

- G20 국가 중에서는 9번째, 아시아 국가에서는 일본과 호주에 이어 3번째로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어서게 됨
- 전 세계 국가 중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어서는 국가는 27개국이며²⁾, 인구 규모가 5천만 명 이상인 국가 중에서는 7번째임³⁾
 -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6개 국가는 미국, 일본, 독일, 프랑스, 영국, 이태리 등임

■ 우리나라 1인당 GDP가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증가하는 데 세계 평균 8년⁴⁾보다 4년이 긴 12년이 걸렸음

1) 국회예산정책처(2017), “2018년 및 중기 경제전망”

2) 국회예산정책처(2017), “2018년 및 중기 경제전망”

3) SBS 뉴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(2018. 1. 6), “한국, 올해 선진국 진입 ‘3050 클럽’ 가입 가능?”

4) 국회예산정책처(2017), “2018년 및 중기 경제전망”

■ 한편 일본을 제외한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국가의 평균 기간도 12년으로 우리나라와 같음

- 미국(1987~1996, 9년), 일본(1987~1992, 5년), 독일(1990~1995~2003, 5년, 13년), 프랑스(1990~2003, 13년), 영국(1990~2003, 13년), 이탈리아(1990~2004, 14년)
 - 독일은 1995년과 96년 1인당 GDP가 일시적으로 3만 달러를 넘어서기도 하였으나 이후 2만 달러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2003년부터 3만 달러 이상을 지속함

■ 이들 국가들보다 높았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고려할 때 1인당 GDP가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증가하는 데 더 긴 시간이 소요된 것처럼 보이는데, 본 고에서는 경제성장률과 환율 간의 관계를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

〈표 1〉 1인당 GDP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기간 평균 경제 성장률

구분	한국	미국	일본	영국	독일	프랑스	이탈리아
실질경제성장률	3.5%	3.0%	4.0%	1.7%	1.6%	2.0%	1.5%
명목경제성장률	6.3%	6.6%	6.0%	5.3%	2.9%	3.9%	3.3%

주: 한국은 2006~2016, 미국은 1987~1996, 일본은 1987~1992, 영국은 1990~2003, 독일은 1990~2003, 프랑스는 1990~2003, 이탈리아는 1990~2004 기간 중 연간 경제성장률의 단순평균임

자료: IMF databas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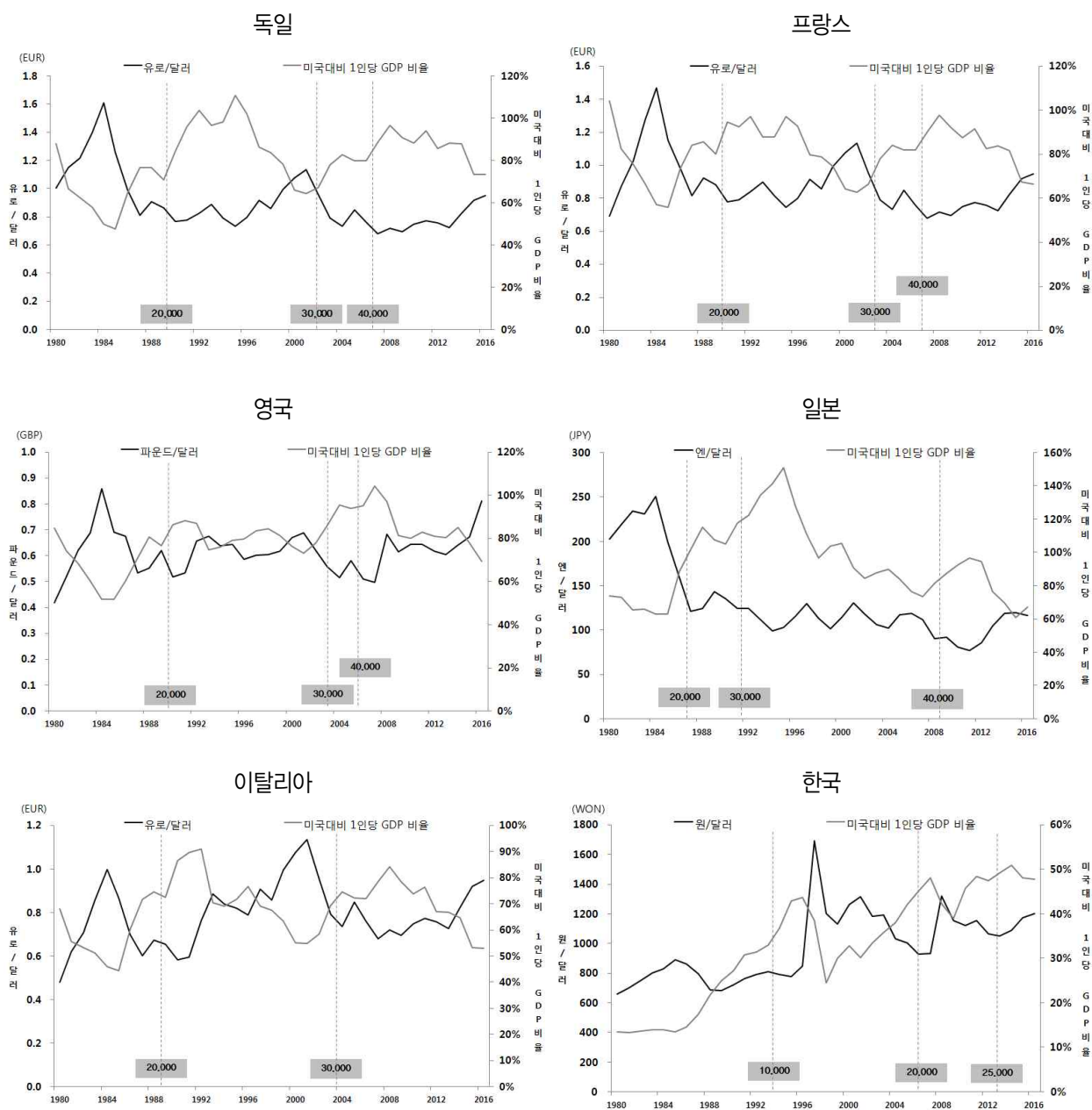
- 환율은 GDP, 금리, 물가, 경상수지, 자본수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나, 기본적으로 한 국가의 경제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미국과의 1인당 GDP 차이(미국 1인당 GDP 대비 각 국가 1인당 GDP 비율)와 달러 대비 통화가치의 변화를 비교함

■ 먼저 1980년부터 장기 추세를 보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1인당 GDP 차이가 줄어드는 가운데 원/달러 환율은 상승하는 모습이고, 두 시계열 간의 상관관계(correlation)도 0.50으로 양(+)의 값을 가짐

- 1980년 우리나라 1인당 GDP는 1,711달러로 미국의 14%에 불과하였으나, 1만 달러를 넘어서신 1994년에는 37%, 2만 달러를 달성한 2006년에는 45%, 2016년에는 48%로 상승함
- 한편, 원/달러 환율(연말기준)은 1980년 659원에서, 1994년 793원, 2006년 930원, 2016년 1,204원으로 상승하였음
- 1980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대비 우리나라 1인당 GDP 비율과 원/달러 환율의 상관관계는 0.50이며, 이는 일반적인 환율결정이론과 부합하지 않는 모습임
 - A국과 B국 사이에서 A국 경제성장률이 B국보다 높으면 A국 통화가치도 B국보다 높아진다는 것이 경제학적 설명임

- 이에 반해 다른 5개국(미국 제외)의 경우 1980년 이후 미국과의 1인당 GDP 격차와 환율 간에는 음(-)의 상관관계를 보임
- 상관관계를 보면 일본: -0.46, 독일: -0.80, 프랑스: -0.82, 영국: -0.62, 이태리: -0.55로 모두 음(-)의 값을 가짐

〈그림 1〉 주요국 환율 및 미국 대비 1인당 GDP 비율 추이



자료: IMF, BIS database

- 초점을 1인당 GDP가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증가한 기간으로 좁혀보면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국과의 1인당 GDP 격차와 환율 간의 상관관계가 이론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음(-)의 값을 보이나,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절대값으로 측정한 크기가 작음

- 우리나라(2006~2017): -0.33, 일본(1987~1991): -0.22, 독일(1990~2002): -0.85, 프랑스(1990~2002): -0.92, 영국(1990~2002): -0.74, 이탈리아(1990~2003): -0.91⁵⁾
- 동 기간 중 우리나라와 일본은 미국 대비 1인당 GDP 비율은 상승하였으나, 프랑스, 이탈리아 등은 하락하였고, 독일과 영국은 큰 변화가 없었음

-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일본을 제외한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국가보다 경제성장률이 낮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율 요인으로 인해 1인당 GDP가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이행하는 기간이 길아짐

-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적으로 이들 국가와 다른 환율 움직임을 보였던 것은 아마도 남북 간에 대치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험, 1997년 외환위기 경험, 그리고 일본과 유럽 등과는 달리 원화가 국제화되지 않았다는 점 등의 영향이 컸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

- 1인당 GDP가 2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에는 환율이 이론과 부합하게 경제력을 반영해가고 있으나 주요국에 비해서 반영 정도는 다소 낮아 보임

- 통화가치가 경제력에 비해 저평가될 경우 수출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내수가 활성화되지 못하여 체감경기 부진 및 소비와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 선순환 형성이 어려워질 수 있음

- 장동구·최영준(2005)⁶⁾이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환율이 상승(원화가치 하락)할 경우 교역재(제조업)의 고용과 생산은 증가하는 반면 실질소득 감소를 통해 비교역재(서비스업)의 고용과 생산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
 - 또한 장동구 외(2006)⁷⁾는 환율 하락(원화가치 상승)으로 제조업의 고용은 감소되나 서비스업의 고용이 더 크게 확대되는데 전체적으로 고용이 늘어난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발표함
- 김윤희·진익(2017)⁸⁾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대비 내수⁹⁾ 비중은 2000년 전후 10년

5) 2만 달러를 달성한 년도부터 3만 달러 직전 년도의 상관관계임

6) 장동구·최영준(2005), 「비교역재 모형을 이용한 최근의 수출호조 및 내수부진에 관한 분석」, 『경제분석』, 제11권, 제1호, 한국은행

7) 장동구·김기호·이현창(2006), 「환율변동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」, 『금융경제연구』, 제261호, 한국은행

8) 김윤희·진익(2017), 「내수활성화 결정요인 분석」, 『경제현안분석』, 93호, 국회예산정책처

- (1996~2005) 평균 70.1%에서 2010년 전후 10년(2006~2015) 평균 56.0%로 14.1%p 하락함
- 10년(2007~2016) 연평균성장률 기준으로 소비 증가율(4.7%)과 투자 증가율(4.8%)이 수출 증가율(6.0%)보다 낮았음
 - 20년(1996~2015) 동안 우리나라의 평균 내수 비중은 61.9%로 OECD 35개국과 BRICS 6개국 등 41개 국가 중 27번째로 낮았음
 - 또한 이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내수 부진으로 경제 선순환 형성이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함

■ 1인당 GDP가 3만 달러 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환율도 경제력을 반영해가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환경이 내수 우호적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내수 부분에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서비스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

- 수출의 경우 기술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환율 의존도를 낮추어야 할 것임 **kiri**

9) 내수는 국민계정상의 민간 가계소비, 정부소비 및 내수 관련 투자를 합산한 값에서 내수 관련 수입을 차감한 것으로 정의함